

최기우 극작가, '이름을 부르는 시간' 출간

반드시 알아야 하는 역사적 사건·선인들 자취 담긴 희곡 실려

최기우 극작가가 다섯 번째 희곡집인 '이름을 부르는 시간'을 출간했다. 이번 희곡집에는 동학농민혁명, 전주3·1운동, 옥구농민항쟁, 조선어학회사건, 전주518민주화운동 등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역사적 사건과 그 속에서 고귀한 삶으로 우리에게 긍지를 갖게 한 선인들의 자취가 담긴 다섯 편의 희곡 '꽃꽃섬', '거두리리리', '1927 옥구 사람들', '수우재에서', '아! 다시 살아...' 등이 실려 있다고 했다. 우리 민족의 상처이고 응어였던 이 사건들은 슬한 이들의 한숨과 눈물, 흐느낌과 절규, 피와 목숨을 내어준 덕에 자랑스러운 역사로 아물었지만, 온몸을 던졌던 사람들은 온갖 풍상 속에서 조금씩 사라졌고 있었다. 이름은 기록돼 있어도 서너 줄의 똑같은 약력으로 남은 사람들, 이름도 불리지 않고 기억되지도 않는 사람들, 이름도 집작할 수 없이 허공 속에서 맴도는 사람들... 우리 역사는 이름처럼 잊힌 사

람들이 끌어온 상처의 결과라는 것. 작가에 따르면 희곡집에 실린 작품들의 첫 문장은 어렵고 막막하고 심란한 과정을 거쳤다. 사건마다 상징적인 인물을 앞세우고, 그 인물의 흔적을 살펴 사람과 사건과 시대를 효율적으로 드러낼 방법을 찾았다고 했다. 좀 더 집요한 기억과 꼼꼼한 기록과 신랄한 탐구로 실체를 드러내 확고한 역사를 전하고 싶었다. 그러나 한계는 분명했다. 더 많이 전하고 싶은 것은 사건 인위에서 잊힌 사람들, 지금이라도 이름을 불러야 할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이름을 바르게 부르기 위해 희미하고 어렵스런 행적을 좇았고, 넘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상했다. 한편 극작가 최기우는 2000년 전북일보 신춘문예(소설)로 등단, 연극·창극·뮤지컬·창작판소리 등 무대극에 집중하며 100여 편의 작품을 무대에 올렸다. 전북일보사 기자와 전주대학교 겸임교수, 《문화연구》 대표 등으로 일했으며, 현재 최명희문화관 관장이다. /장은성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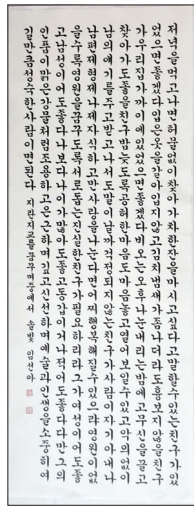


최기우 극작가 '이름을 부르는 시간' 표지

제34회 전라북도서예대전 입상작 선정

임선아씨 한글 작품 대상 수상

제34회 전라북도서예대전에서 임선아씨의 한글 작품이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서예협회전라북도지회(지회장 정영숙)가 개최한 이번 서예대전에는 총 328점의 작품이 출품, 그 가운데 대상 1점, 우수상 5점, 삼체특선 11점, 삼체입선 9점, 특선 42점, 입선 89점 등 총 197점의 입상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이당 송현숙 선생은 "우리 전통문화 예술인 서예를 통해 우리의 참된 정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공모전을 개최했다"며 "올해는 작품 수준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 서예인의 열정과 창작 의욕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글 출품 수가 늘어 고무적"이라며 "특히 대상으로 선정된 임선아 작가의 작품은 공체의 정자체로 한글의 수려함이 돋보였다"고 평했다. 한편 대상에는 임선아씨(1963년생, 익산) 작품 '유안진 시 '지란지교를 꿈꾸며' - 한글'가 뽑혔으며, 우수상에는 박경수



대상 수상 임선아씨 작품

(1968년생, 전주)씨의 작품 '묵여뢰 - 예서', 송유근(1963년생, 전주)씨의 작품 '서거정 시 - 해서', 안인규(1954년생, 군산)씨의 작품 '제소화 - 행서', 이규창(1961년생, 완주)씨의 작품 '도연명 시 - 전서', 전중석(1958년생, 정읍)씨의 작품 '김집 시 - 예서'가 선정됐다. 시상식은 오는 11월 18일 있을 예정이며, 수상작은 11월 18일부터 23일까지 전북예술회관에 전시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제12회 남원국제도예캠프 성료

'현대도예의 울림' 주제 국내외 138명 작가 참여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남원 도자 문화의 우수성을 재조명하고 도자 문화를 국내외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12회 남원국제도예캠프가 대규모 방문객의 호평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춘향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펼쳐진 남원국제도예캠프는 '현대도예의 울림'이라는 주제로 국내외 작가 138명이 참여, 전시회와 물레경진대회 등 8개의 다양한 도예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현대 도예와 남원

도자 문화의 매력을 선보이는 무대가 되었다. 이번 행사의 핵심인 기획초대전과 워크숍에는 영국, 미국, 중국, 호주, 싱가포르, 태국 등 19개국 48명의 해외작가가 참여하여 각국의 도예 문화와 국제적 예술성을 선보였으며, 해외작가 특유의 예술적 기법을 설명하고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통해 깊은 인성과 감동을 주었다. 또한 도자 전공 학생과 일반작가 등 전국의 도예인 60명이 참여한 물레경진대회에서는 예

선과 본선의 치열한 경합 끝에 단국대학교 문성운 군이 대상을 수상하여 상금과 함께 부상으로 전기가마가 전달되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이번 행사는 현장 방문객과 함께 500여명에 이르는 캠프 참여자들이 2박 3일간 남원관광지 일원에서 숙박과 식사를 해결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다는 평이다. 이석보 대회장은 이번 행사가 우리의 도자 문화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교류의 장이 되었다고 평가했으며, 최경식 남원시장은 "심수관가의 분향이자 도자의 고장인 남원에서 개최는 뜻깊은 의미가 있다"며 "함파우 아트벨리 내 국립도자전시관 건립을 통해 남원이 도자 문화의 중심지로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gallery숨 개관 10주년 기획 초대전 김영란 작가 개인전

2023년 gallery숨 개관 10주년 기획 초대전으로 김영란 작가의 12번째 개인전이 열린다. 개관 10주년을 기념해 'PLATFORM'에 참여한 47명의 작가 중 15명이 다시 함께 하는 자리를 마련, 'PLATFORM AGAIN'이라는 기획 아래 릴레이 개인전을 펼치며 그들의 새로운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에 따르면 'PLATFORM'은 서로 다른 개성의 작가들이 숨이라는 플랫폼에서 서로 소통하고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또 다른 출발한다는 의미를 담은 기획이다. 작가에 따르면 돌아가신 엄마가 남기고 가신 모시, 삼베, 명주 등의 옷감을 오랜 기간 간직해 오며 언젠가는 이것들을 작품으로 풀어내야겠다는 다짐을 하곤 했다한다. 그러던 중 지인들은 그들의 엄마가 남기신 천들을 작가에게 보내왔고 엄마들의 이름 석 자, 행복했던 시절들의 사진들을 보내 차근차근 작가의 숙제를 도왔다.



작가는 작업에서 이 땅을 살다간 질박했던 그들의 삶과 재배를 다시금 소환한다. 이름 없는 풀꽃처럼 강인하지만 애잔해 지푸 지푸 눈길 가는 그 얼굴들을... 소박한 그들의 이름을 곱고운 실로 수를 놓고, 시집을 때 좋은 길로 인도 해줄 거라 만들어 주었던 버선을 생각하며 엄마가 남긴 오래된 명주와 엄마의 저승 길, 고운 길로 훨훨 가시라 한 땀 한 땀 만들어 본다. 또한 엄마가 남기신 옷과 어울릴 것 같지 않을 화려한 기계 지수를 골라보아 엄마의 남모를 숨은 붉은 마음을 뒤늦게나마 보여 주고자한다. 거친 삼베와 모시 등으로 캐스팅한 신발을 나일 벽면에 설치한 '울 엄마 계 타던 날'은 어려운 살림에 살뜰하게 계를 부여 목돈을 마련하던 그 부푼 날을 거친 신발 위 고운 꽃으로 표현하였다. 시아버지가 간직하셨던 시어머니의 선 볼 때 보내온 사진, 지인들이 보내준 귀한 아들 돌때의 엄마의 당당한 사진, 봄날 이화꽃가지 살포시 잡고 찍은 엄마의 처녀시절, 큰 아들 장가보낸 젊은 엄마 등...을 실스크린으로 옮겨 그들의 아름다운 시절을 다시금 그려보게 한다. 끝으로 작가는 자수, 바느질, 판화, 캐스팅 등 다양한 표현 방법으로 각각의 설치 공간을 흥미롭게 꾸미고 있으며 일관성 있는 주제로 그 흐름을 잘 이끌어 우리의 엄마들을 다시 기리고 그리워하게 만든다. 김영란 작가는 이화여자대학교를 거쳐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술학과를 졸업했다.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강사로, 2019년에는 팔북예술공간 입주작가로 활동했다. /장은성 기자

국립민속국악원, 판소리 눈대목 무대

국립민속국악원(원장 김중현)은 오는 21일 민속음악의 멋과 흥을 즐길 수 있는 '토요국악 무대' 일환으로 판소리 눈대목 기획 무대를 펼친다. 21일 공연에서는 판소리 중 가장 많이 불리는 판소리 흥보가 중 '화초장 대목'에 황갑도(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이수자), 고수에 서은기(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고법 이수자), 판소리 심청가 중 '덧동냥 다니는 대목'을 최영란(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이수자)과 황상현(국가무형문화재 남해안별신굿 이수자)의 북으로 만난다. 이어 판소리 춘향가에서도 백미로 꼽히는 '십장구 대목'을 김현주(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이수자)의 판소리와 서은기의 북으로 만난다. /남원=김기두 기자

이해원무용단 아움, 12일 '흑선' 공연

이해원무용단 아움(대표 이해원)은 12일 오후 7시 30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에서 '흑선' 무용 공연을 펼친다고 밝혔다. 무대공연 제작지원사업은 공연예술 분야 창작작품 제작지원을 통해 국내 예술단체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우수창작 작품을 발굴하는 사업이다. 전북문화관광재단에서 주관하는 2023년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사업에 선정된 '흑선'은 1979년 전주 팔복동에서 카세트테이프를 제작하는 썬전자 공장 4백 여명 여공들의 이야기를 소재로 다룬 창작무용이다.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4백 여명의 여공들이 407일간 노동투쟁을 벌인 사건을 모티브로 해 그 당시 삶의 애

환과 역경을 다양한 안무로 표현했다. 주요 운영진으로 총 예술감독·안무에 이해원 대표, 연출에 정인숙 대표(남마루무용단), 대본에 안선우 작가, 음악에 김재덕 감독 등이 참여한다. 이해원 대표는 "이번 공연은 한국무용의 기본 호흡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감정을 표현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이를 통해 세상으로부터 소외된 이들에게 살아갈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재단 창작지원팀(063-230-7442)이나 이해원무용단 아움(010-2651-3935)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형회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연조 16년(1633)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이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뒷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 때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라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더 꾸민다. 한국 누경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